

예수님의 신인에 대한 믿음의 기반

예수님의 승천이래 기독교인의 선교의 최대 issue 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신의 초두에서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1 : 3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로마서 1 : 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구절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라고 믿는 믿음의 기반이 무엇입니까?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진 신인(God-Man)은 역사상 예수님 하나 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사실을 반석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기반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성령의 증거로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그 믿음을 갖고 있다!

이말은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실(史實, Historic Event)들을 일점일획도 틀림없는 역사적 史實(Historic Event)로 믿는다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史實(Historic Event)들이 신문에 날 수 있는 확실한 객관적 史實(Historic Event)임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이 역사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바로 여기에 현대신학이 제기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르트를 위시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기록은 신문에 날 수 있는 역사적 史實(Historic Event)이 아니라, 그것은 초역사, geshichte 라고 합니다. 초역사, geshichte 는 실제의 역사가 아닌

사건해석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사건 기록의 역사가 아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사건 해석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실제의 역사가 아니고 전파된 메세지 kerygma 라고 합니다.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이런 文字(Technical Terminology)들이 나오면 고개를 젓고 도망가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교역자나 평신도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교역자들은 교회를 이끌어 가려면 적당히 가르치고, 적당히 알게 해야 한다. 너무 많이 가르치면 머리만 커져서 교회를 이끌어 가기 힘들다 하며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또 평신도들은 생각해봐야 할 주제가 나오면 머리가 아프다고 회피하며 simple 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해주길 바랍니다. 이것은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깊은 상처가 들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겪은 일 중에 노르웨이의 테러 분자가 기독교 근본 주의자라고 일간지에서 일제히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테러 분자가 기독교 근본 주의자라고 하여 주요 일간지에서 일제히 보도했다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겐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한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교적 차원에서볼 때 기독교 계에 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더우기 근래에 기독교 인구가 몇백만이 빠져 나갔다고 하는 현실에선 더욱 그러 합니다.

일부 교단에서 몇몇 교역자들이 기독교 근본주의는 그런 테러와는 상관이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는 하나, 바다속에 돌하나 던져 넣은 것보다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 성명서를 읽고 자신들의 보도가 잘 못되었다고 수정 기사를 실은 일간지는 아직 못봤으니까요. 기독교 근본주의와 테러를 연관 시키려 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근본주의는 한국에만 있지 미국이나 유럽엔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교회 멤버들에게 열심히 가르쳐 왔다면, 교인들이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의 입장에서 이 사실을 평가해 보면, 이것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부재가 여실히 들어 난 것이라고 봅니다. 평상시에 성경 공부를 통해 이런 상식적인 것들에 대해 부지런히 가르쳤다면 그런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도 아무 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것은 골치 아프다고 회피하려 하지 말고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성경의 역사성의 문제는, 이미 신학교나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인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이상 그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통신학은 역사에 대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말하기 위해 이 공부를 준비했습니다.

바르트는 성경의 기록은 역사, history 가 아니고, 초역사, geschichte 라는 입장에 섭니다. 초역사라는 것은 무엇이나 하면 인간의 사고 속에서 이해되어진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건으로서의 역사 history 는 시간이 지남과 함께 곧 바로 초역사로 들어 가게 되고, 우리가 대하는 역사적 기록은 어쩔 수 없이 그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선입견이 포함된 초역사를 읽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실존 상황이 바로 그런 역사를 기록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초역사이지, 신문에 날 수 있는 객관적 의미의 역사, history 는 아니고, 바로 이런 초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초역사를 이해하시기 쉽도록 나의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80 년도에 미국에 와서이민 초창기에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불자동차가 사이렌을 울며 거리를 질주해 갔습니다. 저는 늘쌍 있는 일이라니 하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한 20 분 정도 지난 후에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않으신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가지고 한살된 모세를 안고 저에게 달려 오셨습니다. 바로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내가 살던 아파트는 삼층짜리 건물인데 한 층에 두 가구씩 여섯 가구가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그 때 우리는 맨 밑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을 다 끄고 난 다음 보니깐, 한 건물안에 있는 6 개 가구 중 5 가구는 다 불타 버렸지만, 내가 사는 아파트는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 불이 나 다른 아파트는 다 타버렸지만, 우리 아파트는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서 하나도 손상이 없이 그대로 보존되었다” 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서 하나도 손상이 없이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이 사실이 History 라고 믿으세요?

Geschichte 라고 믿으세요?

이것은 역사이기도 하면서 초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서 하나도 손상이 없이 그대로 보존되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제가 그렇게 해석한 초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아파트에 불이났다. 그러나 한 아파트는 아무런 해도 없었다”

그러나 초역사를 주장하는 사람은,

“역사는 시간 속으로 묻혀 버리고, 신앙적 해석인 초역사만 남았다.”

만약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 그것은 Geschichte 이지 History 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기독교인으로써 나사가 풀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화재가 났지만 하나님이 역사로 손상없이 보존된 것입니다. 사건 안에 그 사건의 해석이 포함되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무슨 증거가 있느냐? 그 증거를 대면 내가 믿겠다.”
성경에 기록이 그 증거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말한 사실이 저에게 체험된 것에 불과 합니다.

이사야 43 : 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 : 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 : 3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웨에 대한 신앙 안에서 역사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기록한 책입니다. 역사이며 초역사이고, history 이며 geschichte 입니다.

history 는 없고 geschichte 만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독일의 신학자인 판넨베르크는

“케리그마에서 역사성을 단절하는 것은 케리그마에서 생명선을 단절하는 것이라고.”

성경에는 언제나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대한 예언자적 해석이 따릅니다.

이 예언자적 해석은 곧 그들의 야웨에 대한 신앙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야웨에 대한 신앙을 체계화, 조직화 한 것이 dogmatics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적 바탕 위에서 dogmatical 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성경에 기록된 史實들이 초역사이지 역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 4 : 2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일서 4 : 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역사속에 들어 오신 것을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없어서 속죄 사역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속죄 사역을 부인하면 우리의 구원이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존재를 부인하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

여기서 바르트는 역사상 존재했던 예수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의 역사적 기록은 모두 신문에 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사건을 해석한 초대 교회 교인들의 초역사라고 합니다. 초대 교회 교인들이 전한 신앙의 메세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 교회 교인들의 메시아의 대망이 예수라는 인간을 메시아로 이해 했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는 인정하지만 그의 속죄 사역은 초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몸으로 역사속에 들어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말입니다.

같은 현대의 신학자인 판네페르크는 바르트 신학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케리그마에서 역사성을 단절하는 것은 케리그마에서 생명선을 단절하는 것이라고.”

판네페르크의 이 말은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역사 그 자체는 믿음이 아닐지라도 역사에 기반을 두지 않은 믿음은 공중에 떠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했다고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모두 착각과 환상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역사적 예수는 인정하지만 그의 속죄 사역은 초역사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을 장군으로 만들어 나라를 구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순신 장군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나라를 구원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위대한 장군이고 그의 승전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건 안에 그 사건의 해석이 포함되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케리그마에서 역사성을 단절하는 것은 ”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역사적 예수는 인정하나, 역사적 예수가 이룬 일은 초대 교회 교인들의 정신적 산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과 같이 아주 위험한 주장이 됩니다. 저는 바르트가 자유 주의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 감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르트의 신학에는 이런 위험도 있음을 감지하고 주의를 기우리는 사람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오병이어로 오천명을 먹이시고 열두광주리를 거두셨으며,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제물이 실제로 되셨으며, 부활하시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존 상황이 만들어 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신약의 기록이 역사가 아니고, 초역사라고 하는 것은, 발전소와 연결이 끊어진 전선이요, 휘발유가 다 말라 버린 가스스테이션에서 개스 라인을 붙들고 서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생명선은 단절해놓고 살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